

304장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29장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 (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 (3) 세상권세 너의 앞길 막을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보고 나가라
-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기도 담당

9/9(수)	9/10(목)	9/11(금)	9/12(토)	9/14(월)	9/15(화)
심재현1 안수집사	박기홍 안수집사	안상현1 안수집사	박기철 안수집사	박성해 안수집사	석승진 안수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한별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304장	다함께
기도	박기홍 안수집사	
성경봉독	사무엘하 10:1~5	인도자
찬양	십자가 군기	새벽찬양대
설교	『 은총을 은총으로 』	김한별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함께
찬송	429장	다함께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사무엘하 10:1~5 >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3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4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9월 10일(목)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걸음을 주의 뜻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받은 사랑을 쉽게 지나치고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을 의심하고 감사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쉽게 판단했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경향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양 떼를 사랑과 진리로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 새문안교회를 통해 복음의 기쁨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며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고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복음의 소망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분열과 불신을 넘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고 공의와 책임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